



[지속가능] 美 낙농업계,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지속가능 성과 공유



미국낙농혁신센터(The Innovation Center for US Dairy)가 지속가능 낙농을 위한 낙농업계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자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2019년부터 2년에 걸쳐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낙농업계의 성과가 수록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낙농업계는 푸드뱅크를 통해 1억 3800만명에게 우유, 치즈 및 요거트 등 유제품을 공급하며 취약계층의 영양공급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7,529억 3,000만 달러(약 898조 7천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낙농가협회, 전미낙농식품협회(IDFA), 미국유제품수출협회(USDEC) 등 낙농단체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물 사용 최적화 및 수질 개선을 위한 ‘탄소 제로화 구상(Net Zero Initiative)’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낙농혁신센터는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격년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 환경 보존 등 낙농업계의 지속가능성 발전 현황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 출처 : csrwire.com, 10월 7일자 >

[낙농경영] 방글라데시, 코로나19로 낙농가 20% 폐업

- 사료가격 등 생산비 상승에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며 어려움 가중



방글라데시 낙농업계가 사료가격 및 기타 운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까지 덮치며 폐업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방글라데시낙농가협회(BDFA)에 따르면, 원유가격은 하락한 반면 사료가격 등 생산비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약 20%의 목장이 문을 닫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농가들은 한 달에 5만 타카(약 70만원)에서 7만 타카(약 98만원)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코로나19로 공급망에도 차질이 생겨 원유가 제때 집유되지 못해 폐기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협회관계자는 정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 출처 : dhakatribune.com, 10월 9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